



금강산

11

주제 107 (2018)
부제 제351호 월간

윷놀이 좋라

약간 빠르고 흥취나게

작사 김기호
작곡 리봉련

1. 옛 - 짜 옛 - 짜 윷을던 져라 흥 이로 세
 윷을던 져라 첫 - 판부 - 터 승벽이나서
 서로서로 가슴조인다로 동 - 당세월 —
 명절 - 도 많아 — 우 - 리의 생활 -
 기 - 뿐 - 일세 - 윷 - 놀이 - 좋 - 다

2. 옛짜옛짜 윷을 던져라
 저것 봐라 석동산이다
 우리 서로 마음 합치여
 지름길로 곧바로 가자
 (후렴)

3. 옛짜옛짜 윷을 던져라
 민속놀이 웃음이로세
 오늘의 이 기쁨이
 일터마다 노래가 되리
 (후렴)



민족의 억센 기상으로

맞다드는 상대들을 위력한 발타격으로 제압하는 조선 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의 김광주선수,
선수의 얼굴에는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태권도를 더욱 빛내여갈 열의가 비껴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차 례

- 민족체육 활발히 진행 -

온 나라에 하염히는 민족체육열풍 3

일화

체육에서도 민족전통을 이어가도록 하시여 6

날로 발전하는 민족체육을 두고 8

수기

민족적긍지가 넘쳐납니다 9

태권도인들의 활무대 10

나아린 바둑선수들 16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8

생산열의 드높다 20

제품의 질제고를 위해 22

화장품생산에서 계속 비약 24

성능높은 건설기계들을 생산한다 26

치료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28

《인간에 대한 사랑부려 열매 키니라》 30

푸른숲의 주민들 32

선수후비육성에 힘을 넣어 34

조각신동 오길성 36



32



교단에 선 어머니의 모습 38

편지

삼촌의 모습을 그려보며 39

고향소식

고향땅에 깃든 애국의 마음 40

조국의 품에 안겨

그가 걸는 길 42

인상기

교육에 큰 힘을 넣고있는 고국 44

훌륭한 제도가 놓은 결실이다 44

체념무옹수의 지향 45

수기

나는 조선민요를 사랑한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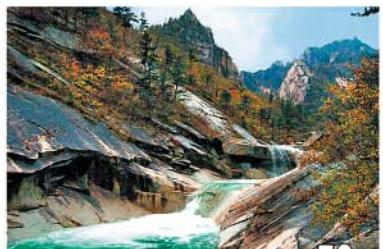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학 (1) 47

사화

마지막발명품 48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2) 49

조국의 천연기념물 (22) 50



민족의 향기

《김치깍두기 맛 참 좋다!》 52

력사인물

석저장군 김덕령 53

야화

무술터 홍산 54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끄시여 55

독도강탈에 환장한 일본 56

상식

우리 나라에서 만든 첫 세계지도 17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저수지터-벽골제 31

질병예방에 좋은 밤송을 마시기 37

오랜 옛날부터 소문난 조선종이 53

조선속담 (인내성) 27

유모아

과학적 추리 38

- 민족체육 활발히 진행 -

온 나라에 퍼녕히는 민족체육열풍

조국에서는 민족의 고유하고 귀중한 문화와 전통이 보존발전되고 사회생활의 전반에 구현되고 있다.

날로 장려되고 발전하는 민족체육의 면모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민족체육에는 사람들의 체력단련에 좋은 태권도, 씨름, 바줄당기기 그리고 지능계 발에 좋은 바둑을 비롯하여 여성들이 즐겨하는 그네뛰기, 널뛰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떡우기 등 많은 종목들이 있다.

이 모든 종목들은 때와 장소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쉽게 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체질상특성을

은 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조국에서는 전국적 범위의 민족체육경기대회와 함께 크고작은 규모의 민족체육경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태권도를 놓고보아도 그 조직과 보급, 선수양성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해마다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태권도경기들이 수많은 태권도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체육경기대회의 주요경기종목으로 선정되고 소년 태권도, 로인태권도 등이 널리 보급되어 사회적으로 태권도의 대중화, 생활화를 적극 추동하고 있다.

그러한 속에 조국의 태권도선수들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여 태권도국으로서의 그 기상을 만방에 펼치고 있다.

고조선시기에 그 연원을 두고 민족의 혁신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흘러온 바둑은 또 어떠한가.

씨름경기와 바줄당기기경기의 한 장면



살려주고 민족적 정서를 풍부히 하여준다.

오늘 조국에서는 민족체육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대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랜 발전력사를 가지고 있는 태권도, 바둑, 씨름, 바줄당기기, 활쏘기 등은 현대적인 민족체육경기종목으로 발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적 명절들과 뜻깊



- 민족체육 활발히 진행 -

봉건시기에는 태권도나 바둑이나 두던 바둑이 오늘은 대중적인 지능놀이로 계승발전되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마다 수많은 바둑선수들과 애호가들의 참가하에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와 전국바둑애호가경기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와 지방에 바둑원, 민속오락장이 꾸려져 사회적으로 바둑애호가들이 더욱 들어나고 있다.

어찌 태권도와 바둑뿐만이랴.

평양의 이름난 명승지인 풍랑봉에서 민족웃을 떨쳐입고 북파��파리, 장고를 치며 열기를 둑구는 사람들의 응원속에 진행되는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도 불만 하지만 아름다운 민족의상인 조선치마저고리를 떨쳐입고 하늘중천에 날아올라 방울을 차는 여성들의 그네뛰기경기는 사람들의 생활에 민족적 향취가 한껏 넘쳐나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띠우기와 팽이치기를 하며 신명이 나서 좋아라 웃고떠들며 뛰여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민족적색채를 더해주고 있다.

조국땅에 넘쳐나는 민족체육바람과 그로 하여 나날이 더욱 꽂펴나는 민족성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81(1992)년 9월 태권도전당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태권도를 널리 보급

태권도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학생들

하여 대중화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소학교학생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태권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모든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더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어느 한 학교운동장에 있는 씨름장과 그네터를 보시고 일군들에게 학생들속에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하는 씨름과 그네뛰기를 널리 장려할데 대하여 이르시였고 허물없이 농민들과 함께 풍석에 앉으시여 배지기를 하라, 안걸이를 걸라 훈수까지 하시여 씨름경기가 더욱 고조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수한 민족체육을 적극 장려하여 우리 민족의 강의한 넋파 기상을 떨쳐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널뛰기, 그네뛰기경기에 나선 여성근로자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권도는 조선체육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시면서 일찍부터 그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태권도관을 기념비적건축물로 응장하게 꾸려주시고 친히 『태권도전당』이라는 친필까지 써보내주시였다.

온 나라가 뜻밖의 대국상으로 비분에 잠겨있던 때 어느 한 나라에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태권도선수들에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꼭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비행기까지 띠워주시였다.

언제인가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인것을 널리 장려 할데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신 그이이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앞으로 민족체육종목경기를 적극 장려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씨름경기도 그냥 조직하지 말고 소를 내걸고 요란하게 하여야 한다고, 도별통일연띠우기경기 같은것도 조직하여 우승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며 명절날 같은 때에 민족체육종목경기를 조직하고 연띠우기도 하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체육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세심하고도 뜨거운 은정속에 민족씨름경기는 그 내용과 형식이 근본적으



신나게 진행되는 유치원어린이들의 바줄당기기와 씨름, 바둑경기



- 민족체육 활발히 진행 -

로 개선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황소상 전 국민족씨름경기로 발전하게 되였다.

나라의 대중체육발전에서 민족체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에 민족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주체102(2013)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체육관에서 도별대항경기를 조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대항체육경기에서 진행할 경기 종목을 잘 선정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도대항체육경기에 씨름과 바줄당기기 같은 민족체육종목을 꼭 넣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이번에 도대항체육경기에 씨름종목을 넣으라고 하였는데 씨름경기에 유치원생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다 참가하니 볼 재미가 있다고, 도대항체육경기에 씨름종목을 넣기 잘하였다고 하시며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체육에 힘을 넣어 민족체육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신 태권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이깃들어있다.

주체101(2012)년 3월 태권도선수들의 시범 출연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태권도기술발전에서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능숙한 전술수법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우리의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태권도의 위력을 시위할데 대하여서와 세계를 우리의 태권도판으로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태권도선수들에게 백승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체육은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으며 그로하여 사회전반에 민족성이 더 활짝 꽂펴나게 하고 있다.

정녕 민족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주시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조국의 반만년 민족사가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일화

체육에서도 민족전통을 이어가도록 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의 첫 운동회날에

조국이 해방되어 한달 남짓이 지난 주체34(1945)년 9월 어느날 원산시 남산공설운동장(당시)에서는 운동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도 경기를 보자고 하시며 항일혁명투사들을 운동장으로 이끄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저으기 놀란 표정을 짓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렸다. 그것은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체육사업은 청년들과 인민들을 튼튼한 체력과 건전한 사상을 가진 건국투사로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운동회에서는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활쏘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가 진행되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경기장에 모인 원산시민들은 목청을 돌구어 자기 팀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인민들의 운동회를 보게 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심정도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경기를 이윽토록 지켜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투사들과 일군들에게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씨름, 그네와 같은 민족체육을 널리 장려하여야 하겠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후 조국땅 어디 가나 민족체육경기로 흥성거리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였다.

새로 생겨난 씨름종목

주체88(1999)년 6월 4일,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육부문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민족씨름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애니 나왔는가교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사이 전문가들과의 진지한 협의끝에 작성한 대책안을 그이께 보고드리였다.

대책안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께서 인민군대체육단에 민족씨름종목을 새로 내오도록 하였다고 알려주시였다.

그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그때까지 체육단들은 국제무대에 나가 승부를 겨루는 체육종목만을 가지고있었다. 그리고 체육부문의 일군들도 민족체육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범위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대중체육으로만 장려하는것으로 그치고 체육단들에 씨름종목을 두는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이며 민족체육경기종목인 씨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는 인민군대의 체육단들에 민족씨름종목을 두도록 하시였던것이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으며 고유한 우리의 민족씨름을 적극 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민족씨름을 장려하는 사업에 힘을 넣겠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해마다 공화국선수권대회를 기본으로 하여 씨름경기를 크게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되여 민족씨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여나 전문체육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욱 떨치도록

태권도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태권도모국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에 멀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려차례에 걸쳐 태권도의 강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권도선수들의 맞서기경기를 보아주시였다.

선수들의 경기를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권도기술과 경기전법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기가 끝난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태권도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면 우리식의 태권도전술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이께서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강화발전을 위해 얼마나 깊은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오시는지라는 모르고있었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어느날 태권도선수, 감독, 사범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권도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묘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만천하에 높이 떨쳐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태권도기술발전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조선의 태권도선수들은 국제경기들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며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연옥



날로 발전하는 민족체육을 두고

오늘 조국땅 그 어디서나 민족체육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족체육은 민족고유의 특징이 뚜렷 할뿐 아니라 혁사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문화성과 고상한 도덕적풍모, 전전한 취미 그리고 풍부한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에서는 민족체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고 있으며 민족체육을 중시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 민족적궁지와 자부심, 조국파 향토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민족체육을 장려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여러 로작들에서 민족체육을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교시들을 주시였으며 민족체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태권도의 발상지인 평양의 풍치수려한 청춘거리에 태권도전당을 일떠세워주시고 정통무도인 태권도가 더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주체81(1992)년 9월 새로 건설한 태권도전당을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태권도선수, 사범들의 시범출연도 보아주시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여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족체육종목인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여 온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우리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며 태권도기술과 전통적인 씨름기술수법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말 조국의 민족체육중시정책에 의하여 우리의 태권도는 세계무대에서 빛을 뿐리고 있으며 온 나라에는 민족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오늘 공원이나 명승지들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과 그네뛰기, 널뛰기를 하는 여성들, 장기, 바둑을 비롯한 민속오락경기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군 한다.

그것은 우리의 민족체육이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람들속에 민족적궁지와 자부심,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조선로동당의 민족체육중시정책이 있어 우리의 민족체육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빛을 뿐릴것이라고.

조선체육대학 민족체육강좌 강좌장 친영준

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농업근로자 민족체육경기대회,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온 한해 진행되는 경기들만 놓고보아도 청소년, 노동자, 농업근로자, 사무원, 정무원들이 민족체육경기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올해 년초에 진행된 제23차 백두산상 중앙기판 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성, 중앙기판일군들의 바줄당기기와 태권도경기를 보고 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다.

태권도경기의 개인들, 집체들, 호신술수준이 높아지는것이 한해가 다르게 알리였기때문이였다.

지난 여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이 경기대회에 우리 강좌의 교원들이 심판으로 참가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각 도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농업근로자들이 그동안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그 열의 또한 얼마나 높은지 씨름, 태권도, 그네뛰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승부를 가르기가 헐치 않았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였다.

가정이면 가정, 인민반이면 인민반이 모여앉아 장기, 윷놀이경기로 흥을 돋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기차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바줄당기기, 태권도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때는 우리 강좌로 씨름, 바줄당기기, 태권도를 배워달라는 전화들이 수없이 걸려오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대할 때마다 민족체육분야에서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나로서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어쩔수 없다.

민족체육은 강의하고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체질적특성과 고상한 감정정서에 맞는것으로서 조선민족의 귀중한 유산이다.



수 기

민족적궁지가 넘쳐납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족의 정통무도들의 수도 헤아릴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그 많은 무도 가운데서도 조선의 태권도는 오

늘 국제무도의 중심에 우뚝 솟아 민족의 자랑으로, 인류공동의 재부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유산인 태권도가 이처럼 빛을 뿌리게 된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領導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절세의 위인들께서는 민족문화발전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태권도를 나라의 민족전통체육으로 내세워주시고 그 발전을 위한 국가적지도체계와 경기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이 태권도를 배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더우기 태권도의 앞날을 책임지고 떠메고나갈 역군들을 육성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하여 체육계에 나선 당시 4.25체육단의 배구선수로 있던 저도 나라의 조치에 의해 태권도선수로 선발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능한 감독들의 지도밑에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틀을 비롯한 기초지식을 하나하나 체득해나갔습니다. 훈련의 나날 어려운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권도로 조국을 빛내일 하나의 생각으로 육체적한계의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냈으며 마침내 반년만에는 우리 나라 태권도시범단의 한 성원이 되어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은 베이징과 제남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는 나날 중국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우슈를 세계에서 제일가는 무도로만 알고있던 중국사람들은 조선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완전히 매혹되어 저저마다 태권도를 배워줄것을 요청하여왔습니다.

그후 주체76(1987)년 5월 그리스에서 진행된 제5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태

권도선수들은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지만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저는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들은 이 성과를 두고 《국제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조선의 태권도선수들》, 《예상을 뒤집어엎은 제5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등의 표제를 달고 우리의 승리를 련일 소개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제6차, 제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연속 참가하여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련전련승하였으며 총 8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들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마다에서 우승하는 저를 두고 《녀자태권도의 최강자》라고 크게 소개하는 한편 날로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태권도에 대하여 지면을 아끼지 않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렇게 날을 따라 조선의 태권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가는 속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저저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과 사범들을 자기 나라에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은 그후 이탈리아, 탄자니아, 노르웨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 태권도모범출연으로 태권도의 우수성을 과시하였으며 사범들은 아시아 물론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지역으로 파견되어 세계의 수천만 청소년들에게 태권도교육을 주었습니다.

오늘 태권도는 120개 나라와 지역들에 보급되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정기적으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무도로 자기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세계에 빛을 뿐리고 있는것을 볼 때면 저는 태권도모국의 한 성원이 된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넓이 깃들어있는 태권도를 더욱 세계만방에 떨쳐가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부단장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황영준

- 민족체육 활발히 진행 -

태권도인들의 활무대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무도종목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력사적으로 보면 무예를 장려하던 고구려시기에 인민들속에서 창조된 무술련마돌이인 수박희는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치면서 택

견과 날파람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던것이 주체44(1955)년 4월 최홍희(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선생에 의하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로 완성되었다.

국제태권도련맹 초대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은 제9차 국제태권도련맹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



조선태권도 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의 시범 출연장면들



렇게 말하였다.

『태권도라는 간단한 글자를 만들어놓고 이 세상에 약한 소리를 웨칠 때 즐겁기도 하면서 암담한 생각도 들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집에 있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나의 대부분 인생은 비행기에서 보냈다고 말할수 있다.

가방을 바꾸기 위해서 들리는 집은 카나다에 있고 사는 집은 하늘에 있었다. 나의 이름도 하나는 최홍희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태

권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름과 집은 길 떠난 나그네의 신세를 면치 못하여 풍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따뜻한





시범출연에서 각이한 격파동작들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선수들

- 민족체육 축발의 진행 -

품속에서 나의 이름인 태권도를 다시 찾고 그 어느 왕궁파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나의 집인 태권도전당을 받아안았다. …»

최홍희총재의 말그대로 태권도의 발상지인 조국의 수도 평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웅장한 태권도전당은 도인들모두의 정든 집이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수천만 태권도인들의 꿈과 리상을 꽂아주는 광활한 무대이다.

조선식 합각지붕을 머리에 떠이고 민족적건축형식과 현대미를 살린 태권도전당은 주체 81(1992)년 9월에 개관되었다.

건축면적 7 000여 m²에 연건축면적 1만 8천여 m²나 되는 이곳에는 경기장과 도장, 선수



무도종합훈련장과 태권도훈련장



대기실을 비롯하여 무도인들의 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지난 기간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된 국내, 국제경기대회들만 하여도 다 쫒지 못할 정도이며 조국에서 배출된 태권도영웅들도, 세계적인 태권도강자들도 다 이곳에서 훈련과 경기를 치르었다.

태권도전당에서 훈련하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은 태권도모국의 한 성원이라는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기를 주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자신들의 육체적준비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김수련, 최수련, 김일화, 왕명국, 함충렬, 림위석 선수들은 고급난도동작에 의한 공격기술들을 보다 숙련하고 완성하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지난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었다.

조국의 남녀로소가 태권도를 대중화, 생활화하고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태권도전당결에 웅장하게 세워진 태권도성지판도 도인들의 또 하나의 활무대이다.

주체101(2012)년 4월, 태권도성지판은 개관되자마자 국내외태권도인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에는 태권도의 역사와 유래, 태권도가 걸어온 자랑찬 역사적행적을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는 태권도역사관과 태권도를 배울것을 지향하는 세계의 태권도애호가들과 선수들의 수련을 보장하는 육체훈련관, 태권도지식보급실, 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므니아 림

심판원실과 선수대기실, 바둑훈련장





- 민족체육 활발히 진행 -

시대리대사의 부인 와나 마리아(36살)녀성은 차녀시절 가라데선수였다. 남편과 함께 공화국에 주재한 때로부터 그는 지난 3년간 매주 2차씩 태권도성지관을 찾아 수련하여 2단을 소유하였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영국, 스위스, 카나다, 수리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들의 태권도애호가들이 태권도수련에 시간과 정열을 바쳐가고 있다.

태권도인들의 정든 집이며 활무대인 태권도 전당과 태권도성지관은 세계무도의 한복판에서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의 태권도의 발전을 추동하며 거연히 서있을 것이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태권도성지관에서 태권도수련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태권도성
지관의 국제
회의실



태권도성
지관에는 세
기와 년대를
이어 전해오
는 태권도의
발전역사를
보여주는 태
권도역사관
이 있다.



태권도선수들과 사람들이 흥륭한 태권도전당에서 훈련을
目睹하여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마다 1등을 하고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알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김일성

나어린 바둑선수들

얼마전 우리는 지난 여름에 진행된 전국바둑원바둑경기에서 1등을 하여 3연승을 쟁취한 평양바둑원을 찾았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바둑원은 아담한 2층짜리 건물이었다.

우리와 만난 고승철원장은 바둑명수들을 소개하고 싶어 왔다는 우리의 취지를 듣고는 사람 좋게 웃으며 여러 방들로 안내하였다. 그러면 서 바둑원에는 소조원생과 보급생이 있는데 소조원생은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까지의 학생들이고 보급생은 유치원어린이들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며 들린 곳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바둑경기가 한창인 방이였다.

학생들끼리 경기하는 것도 볼만 했지만 유치원어린이와 머리허연 바둑로장파의 바둑경기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그 유치원생이 지난 3월에 있은 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에서 1등을 한 안경령어린이였다. 얼마나 수읽기능력이 높고 전술활용을 잘하는지 전문가들도 감탄할 지경이였다.

안경령어린이는 4살때부터 바둑을 배웠는데 사고력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우리와 동행한 원장은 지능계발에 좋은 바둑은 집중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하여 어릴 때부터 배워주면 그 우월성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둑신동들을 키워내고 있는 박행운지도교원을 소개해주었다.

박행운지도교원은 바둑도 천성과 함께 노력이 안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학교학생들인 석원웅, 리예진도 유치원시절부터 바둑을 배웠는데 그 때 벌써 경기들에서 1등을 하였고 지금은 전국바둑원바둑경기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하



면서 이들이 공부도 학교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어 우리는 림현철기술부원장이 바둑강의를 하는 방에도 들려보았다.

기술부원장은 소조원생들과 보급생들에게 바둑에서 활용해야 할 전술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며 우리는 한쪽 벽면에 가득 전시해놓은 상장들과 사진들도 보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둑원에서 배출한 바둑명수들을 볼 수 있었다.

전국적인 경기들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한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인 리현경은 상대방의 전술적의도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맞는 대답하고도 공격적인 수쓰기 등 다양한 전술적용으로 하여 전문가들을 언제나 놀래우군 하였다. 전문가 2단을 소유한 그는 전도가 촉망되는 바둑선수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국어린이바둑경기를 비롯한 전국적인



경기들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김성주 소학교 2학년의 한정향 학생, 보통강구역 신원 소학교 4학년의 정효성 학생을 비롯하여 서령, 안진위 학생들과 송효은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바둑신동들이 이곳에서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펴고 있었다.

원장은 앞으로 지도교원들의 역할을 높여 조대원선수와 같이 세계를 놀래울 바둑선수를 키워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향심

상식

우리 나라에서 만든 첫 세계지도

《흔일 강리력대 국도지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만든 세계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 지역, 유럽과 아프리카의 일부, 남방의 섬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도에는 또한 주요 산천과 국가들의 수도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들과 성寨들도 표시되어 있다. 강과 바다는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나라들의 수도들을 비롯한 주민지점들은 색을 달리하여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지도는 묘사가 부정확한 것 등 일련의 부족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세계지도편찬력 사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지도로서 그

묘사방법과 기호, 색조화체계에서 그 후에 제작된 지도들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흔일 강리력대 국도지도》는 우리 나라에서의 지도편찬력을 연구하며 15세기초 우리 선조들의 세계 각 대륙과 나라들에 대한 지리적 견해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된다.

* * *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전호에서 계속)

변달환이네 부자는 둘 다 안 해가 없었다. 로인의 딸이 살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정에 배여있는 쓸 쓸하고 궁색스러운 공기를 가셔버릴수 없었다.

나는 알맞는 배우자를 수소문하느라고 동무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오가자근방 농촌에서 심씨성을 가진 녀자를 물색하여 변달환과 짹을 무어주고 우리 사람들을 동원시켜 혼례까지 치르어주었다. 총각의 몸으로 나많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자니 주제넘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쭈스럽게도 생각되였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르고나니 동네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큰일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일로 해서 우리는 마을 유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였다.

어느날 변달환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동향을 전해주었다. 아버지가 마을유지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리상촌>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놓고

받아들일수 있다. 성주를 나아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고물딱지들이니 젊은 것들에게 오가자를 통채로 떠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돋기나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다른 유지들도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면서 탄복하더라고 하였다.

이런 동향을 듣고나서 나는 변로인을 다시 찾아갔다.

《고려공산당 당증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 로인은 그 당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한테는 그따위 물건짝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다니 돌려줄수도 없고 버릴수도 없고 야단이였다. 그후 그 당증은 우리 동무들손에서 며칠동안 돌아갔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평양으로 찾아온 변대우로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더니 로인은 깊은 감회에 잠긴채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북조선전체가 하나의 리상촌,

리상천국으로 된것을 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에서 우리가 만나던 때를 회고하였다. 그때가 로인이 67살 되는 해였다. 나를 만

난 그해에 로인이 길립성 이통현에서 별세하였는데 그 슬픈 소식을 나는 꽉 후에야 들었다.

변로인의 아들 변달환은 오가자에서 농민동맹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우리의 지도밑에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죄》로 1931년부터 여러해 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오가자의 혁명화를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였다.

유지들이 그다음부터는 마을에 와있는 조선혁명군 공작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음식을 해놓고는 경쟁적으로 우리를 청하였다.

나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 중국사람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중국인유지들을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부만주지방에 마음놓고 밭을 불일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설사 지주라고 하여도 포섭할 여지가 있으면 서슴없이 포섭하고利用하였다.

그 당시 오가자근방에는 조가봉이라는 지주가 살고있었다. 그가 한번은 땅때문에 다른 고장의 지주와 싸우다가 그지주를 재판에 걸기로 결심하

였다.

그런데 조가봉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 지주의 아들이 도회지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도 고소장을 쓸줄 몰랐다. 아마 그가 중학교를 다니였다고는 하지만 건달을 부리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였다.

조가봉은 오가자에서 고려의 사노릇을 하던 김해산에게 고소장을 써줄 인물을 한명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은 김해산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 고소장을 쓸 줄 아는가고 물었다.

우리가 지하혁명활동을 하던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주민들과 학생들의 편리를 위하여

편지, 제문, 고소장 같은것을 쓰는 방법을 서술한 참고서들을 찍어냈다.

김해산을 따라 조가봉의 집에 가니 지주는 중국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잘 대접해주면서 땅때문에 재판을 걸게 된 사연을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나는 지주에게 중어로 소송문건을 써주고 현에까지 따라나가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조가봉은 그 소송문건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였다. 그때 그가 재판에서 졌더라면 몇십정보의 땅을 떼웠을것이다.

그후부터 조가봉은 김선생이

공산당파라고 하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선생은 공산당파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 다, 김교사가 아니였더라면 재판에서 질번 했다고 하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 그 지주는 명절때마다 나를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군 하였다.

나는 조가봉의 집에 갈 때마다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중국인유지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에게 반제국주의교양을 하였다.

그때부터 오가자에서의 나의 혁명활동이 합법화되고 조선인학교의 운영이 합법화되었으며 이 일대에서의 우리의 혁명투쟁지반이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유지들을 돌려세운 다음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먼저 청년회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다. 청년회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영향에 있었다. 조선혁명군소조가 오가자에 간 후 청년회의 핵심성원들이 좀 개명하였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투쟁목적과 과업이 명백치 않았다. 회원수도 적거니와 사업방법도 옳게 서있지 않았다. 활동은 없고 간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서 청년대중을 끌어세우기 위 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있었다. 오가자지구는 10리, 20리, 지어는 60리 떨어져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청년회는 어느 한 마을에도 지부를 두고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청년조직이 대중속에 발을 불일수 없었고 청년대중을 움직일래야 움직일수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청년회를 당장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아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고 또 청년회에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성조직을 새 조직으로 개편하는것은 무리한 일이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청년회간부들과 함께 여러 부락들에 나가 반제청년동맹을 나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히 우리의 혁명로선이 청년군중속에 침투되어갔다. 나도 매일같이 청년들과 담화를 하였다.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는 삼성학교 교실에서 오가자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동맹은 각 부락들에 지부를 두었다. 동맹위원장으로는 최일천, 조직부장으로는 문조양이 선거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생산열의 드높다

전재생산기지의 하나인 평양 전재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제품의 질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특히 일군들 모두가 생산현장의 종업원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데 어리가 되여 수도건설에 필요한 전재생산을 다그치도록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공장의 일군인 최현주는 지난 기간 생산의 정상화를 주체화에서 찾고 이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현대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나라에 혼한 원료를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인 것은 물론 생산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내밀고 있다고 하였다.

실지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지혜로 실정에 맞는 통합 생산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타일, 위생자기, 인조대리석, 외

장재, 방수판, 수지창 등의 생산에 들던 일부 수입원료를 국내원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생산정상화를 실현하는데서 난문제의 하나로 나서던 소성공정, 성형건조공정, 분무건조공정에 드는 수입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연료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을 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설비의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설비들을 창안제작하였으며 이미 있

던 설비들도 개작하여 전력소비를 극력 줄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한계단 높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타일직장, 수지창직장, 부직포직장 등 모든 직장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여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좋고 맵시있는 제품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다.

수지창직장 직장장 윤명식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판철에 멀쳐나선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기세는 매우 높다. 우리는 중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앞으로도 자력자강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전재생산의 주체화를 더욱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해 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새로 생산한 제품을 놓고



여러가지 형태의 수지창생산



각이한 용도의 수지판들도 생산한다.





제품의 질제고를 위해

평양역주변에 자리잡은 어느 한 식당으로는 돼지고기료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김영순지배인은 우리에게 《100여 가지나 되는 돼지고기료리는 어느것이나 다 그 맛이 독특하여 식당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만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대동강돼지공장의 돼지고기를 원자재로 쓴 때로부터 단골손님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실지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여 우리는 얼마전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평양시 교외의 삼석구역에 위치한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무연한 사파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파일생산과 고기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공장은 생산공정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있었다.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된 대동강돼지공장

종축호동, 수정분만호동, 육성호동, 비육호동들마다에는 살진 돼지들이 들어차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최근 공장에서는 돼지고기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 고기의 맛을 더욱 살리기 위한 모를 박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는 우량종돼지기르기와 보존, 돼지의 증체률을 높이고 가공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이는 문제 등을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진행해나가기 위한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집약형 사양방법에 맞게 돼지사양밀도를 높이면서도 육성률을 95% 이상 보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식물성먹이첨가제, 광물질대용먹이첨가제를 연구개발하고 배합사료보장을 비롯한 합리적인 먹이처방을 찾아내여 사료단위를 낮추면서도 돼지의 증체률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여러가지 돼지고기가공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고기맛이 좋은 우량종돼지를 육종해내기 위한 체계를 확립해놓았으며 최신인 공수정기술을 도입하여 새끼돼지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과학적인 면역접종체계와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돼지고기생산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물론 심장, 발쪽, 불살, 꼬리, 혀와 같은 부산물로 만든 여러가지 가공품들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배인 조룡철은 가까운 앞날에 국제시장에서도 대동강돼지공장 고기가공제품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화장품생산에서 계속 비약

봄바람이 향긋한 꽃향기를 신고 불어오듯이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화장품에 대한 명성이 인민들속에 자자하게 퍼져가고 있다.

지금 이곳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들인 기초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과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더 새롭고 질좋은 화장품 생산을 위해 계속 분발하고 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일군인 김혜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이 더욱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둔 성과에 만족해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계속 비약해 나갈데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이의 말씀속에는 하루빨리 화장품공업을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제품, 세계적수준의 화장품들을 안겨주시려는 뜨겁고도 열렬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리여있습니다.』

그리면서 그는 지금 온 공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뜻을 만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보다 강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 포장형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다. 일군들부터가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이미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도 개신하기 위한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으며 대중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최근에만도 공장의 기술자들은 통합생산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구축한데 이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기능성화장품, 나노화장품과 같은 첨단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현대산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정설계, 프로그램설계를 보다 현실성있게 실현하고 구매자들의 수요를 장악하여 과학적인 생산과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모든



직장들에서도 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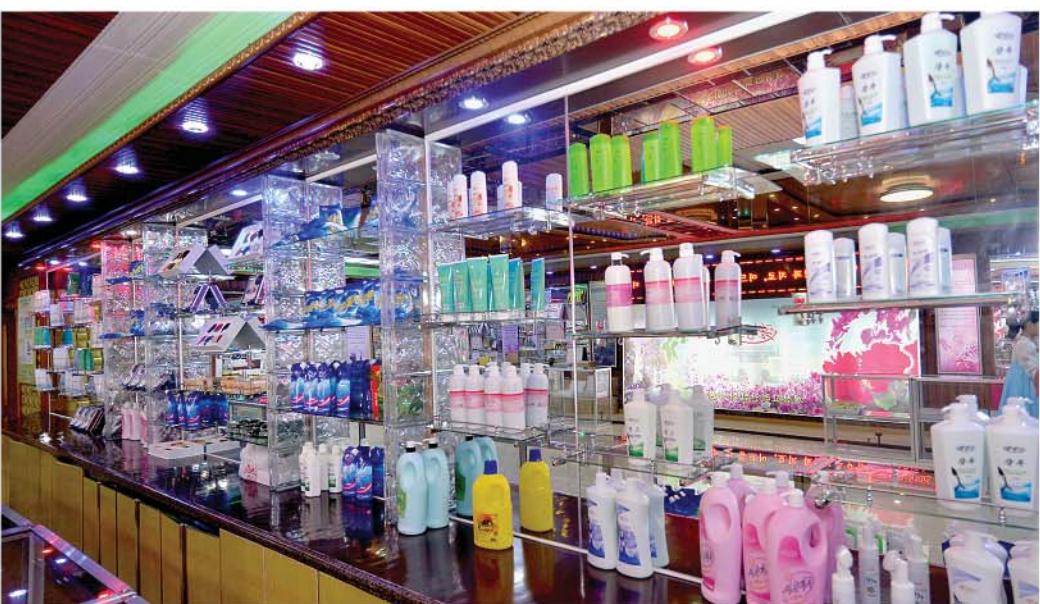
비누직장에서는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비누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기초화장품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

된 결과 살결물과 영양액, 미안막을 비롯한 제품들의 질이 높아지고있었다. 화장품직장에서는 이미 생산하고있는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수요자들의 기호와 나이, 체질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늘여나가고 있으며 화장품의 포장형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

과를 이룩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해가려는 이곳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봄향기》화장품은 보다 새롭고 질좋은 제품으로 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일부

성능높은 건설기계들을 생산한다



쌍통식혼합기를 조립하고 있다.



현장기술협의



전동식자승발판조립



대상설비부속품가공



평양건설기계공장의 노동계급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건설기계들을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여러 종의 전동다짐기들과 전동식 자승발판, 미장몰탈혼합기 등을 만들어내였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수십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찾아가 앞선 기술을 터득하고 부분품의 조립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시험과정에 우결함을 종합분석하고 설비부분품의 기술적 특성을 개선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어 기계설비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유연축소재도 우리 나라에 흔한 자재로

제작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야말로 모든 성과의 담보이며 비결이라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김택수 기술혁신작업반 반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공장기술자들과 함께 창조적인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여러종의 전동다짐기제작과정에 유연축의 성능을 제고하여 설비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한편 공장의 가공종합작업반 반원들도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부속품을 설계의 요구대로 원만히 가공해냄으로써 전동식 자승발판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동다짐기와 전동식자승발판을 비롯한 건설장비 및 기공구들은 적은 로력으로 높은 공사속도와 함께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지금 건설부문에서 널리 이용되고있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 만든 건설기계들의 성능을 보다 높이고 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 속담 (인내성)

-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생 끊임없이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둘도 십년을 보고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무슨 일이나 중단함이 없이 인내성있게 꾸준히 하면 뜻을 이룰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무쇠공이도 삼년 갈면 바늘이 된다

이악하게 달라붙어 꾸준히 노력하면 아무리 힘겹게 여겨지던 일도 능히 해낼수 있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소금이 쏟을 때까지 해보다
어떠한 일을 끝장이 날 때 까지 해본다는것을 이르는 말.

* * *

치료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양시제2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새로운 의학과학기술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환자 치료사업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만도 그들은 현대적인 종합병원정보체계 《문명》1.0을 개발도입하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접수와 진찰, 진

단과 치료 등의 모든 의료봉사 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 정보체계를 시안의 각 구역인민병원들에 적극 도입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의료일군들이 개발한 종합병원정보체계 《문명》1.0은 이곳 병원뿐 아니라

이 정보체계가 구축된 보통강구역과 서성구역, 형제산구역인민병원 등에서 그 실효성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병원의 기능진단과 의료일군들이 현대적으로 그 성능을 간신히 대장내시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영도 좋았다. 이 설비로 검진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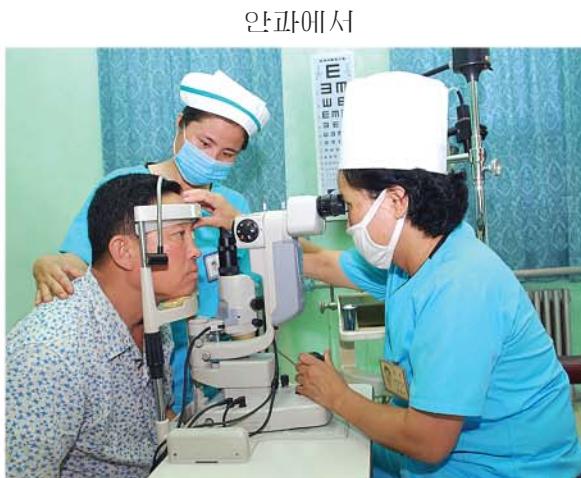
아본 많은 환자들은 이 설비가 종전의 것 보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문직 장외파에서도 의료설비를 현대화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리광희파장을 비롯한 파의 성원들은



종합수술장



안과에서



위내시경검사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실효성이 큰 적외선자동직장암치료기를 개발하였다.

이 적외선자동직장암치료기는 개발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놀라운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적지 않은 직장암환자들을 소생시켰고 그들에게 생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치료기로 치료를 받고 소생한 사람들 속에는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동에 살고 있는 박성일도 있다.

그는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자기가 소생할 수 있은 것은 이곳 병원의 기능진단과의 대장내시경설비가 신속히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 덕도 있지만 홍문직장외파 의료일군들이 개발한 적외선자동직장암치료기의 치료효과가 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모

든 것을 다해가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노력과 정성에 대해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안의 구급생파와 복부외파, 회복치료파 등 모든 파들에서도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자력갱생하며 치료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와 만난 파장 리광희는 말하였다.

『나라의 무상치료제의 혜택

이 인민들에게 어떻게 가닿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생명을 책임진 우리 보건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앞으로 우리는 병원을 보다 훌륭히 꾸리며 환자치료에서 근본으로 되는 진단과 치료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겠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일정국



회복치료파에서

적외선자동직장암치료기를 개발도입하고 있다.



혈육의 정으로 환자들을 돌본다.



《인간에 대한 사랑부터 먼저 하여라》



원사 교수 박사 천은주

얼마전 우리는 조선전통의학계의 대가로 해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는 천은주선생을 소개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찾았다.

우리가 선생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환자치료에 열중하고 있었다. 환자의 몸에서 일정한 혈부위들을 세기가 다르게 눌러본 후 그는 어디가 아픈가고 다정히 물기도 하고 환자가 아플세라 유모아도 섞어가면서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것이였다.

잠시후 우리는 천은주선생에게서 치료를 받은 평양시보통강구역의 리순실녀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달전에 갑자기 나의 오른쪽다리가 마비되었는데 여러 의사들에게 병을 보였지만 그들은 고치기 힘들다며 손대기 주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은주선생님은 나를 꼼꼼히 검진해보더니 빙그레 웃으

며 나의 얼굴에 꼭 웃음꽃을 피워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저는 병을 고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리순실녀성은 천은주선생이 발병원인파병상태에 대해 묘해한 후 며칠동안 치료경험이 무수히 적힌 책들도 보고 두툼한 의학도서들도 참고하면서 진단을 정확히 내린 다음 매일 한시간씩 자기에게 침과 부항, 암마치료를 정성껏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천은주선생이 의사라기보다 자신의 병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다심한 아버지와 같이 환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깡그리 쏟아붓고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는 언제나 이 병은 고칠수 있다, 없다를론 하기 전에 환자의 병을 무조건 완치시키겠다는 잡도리부터 하고 달라붙는다고 한다. 《병마에 시달리는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라고 그가 말하다싶이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그런 생각조차 가질수 없는것이다.

그 사랑을 마음의 재부로 간직한 천은주선생은 지난 47년간 국내외의 난치성질병환자들과 진단불명의 환자들을 무려 20여만명이나 치료하였다.

76년전 조국의 북변 두메산골인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여나 영예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고려



후대교육사업에 열정을 바쳐간다.

치료를 받은 후 병을 털고 일어나는것을 보며 고려의학자가 될 꿈을 안았다는 천은주선생.

공훈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라는 값높은 명예 칭호와 학위학직으로 선생의 인생은 성공하였다 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환자치료와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고있다.

학생들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깊고 풍부한 고려의학지식과 경험을 배워주는 그의 강의시간을 즐겨 기다린다고 한다.

《의술을 배우기 전에 인간에 대한 사랑부터



치료사업에 전념하고있다.

상식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저수지터-벽골제

우리 선조들은 원시시대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세나라시기에 와서는 판개용저수지까지 만들어놓고 논물을 해결하였다. 그 대표적인 저수지의 하나가 전라북도에 건설되었던 벽골제이다.

백제봉건국가는 330년에 여러 고을에 명령하여 강하천들에 제방을 쌓게 하였으며 벽골제와 같은 큰 저수지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넓은 벌에 건설된 벽골제는 그 높이가 1800보에 달하였다.

지니라.》, 이것은 천은주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천은주선생은 무서운 독학가이기도 하다. 환자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은 독서로 쌓아올린 높은 실력에 의해 담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국제학술토론회 등으로 해외에 갔다가도 언제나 현대의학도서들만을 가득 안고왔으며 그렇게 많은 의학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의학도서탐독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전통의학의 신비스러운 묘리를 터득해가는 과정에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민족의 우수성을 느끼게 되었고 교단에 선 때로부터 오늘까지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고 고려의학부문에서 새로운 학과목들을 개척하였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치료방법과 학술론문들을 수많이 발표함으로써 고려의학발전에 뛰렸한 자욱을 남기였다.

그는 지난 47년간 52종이나 되는 의학도서와 교재들을 집필하였고 5명의 박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조선전통의학의 대가-천은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번 크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평범한 의학자입니다.》라며 자신을 더욱 낮추고있다.

오늘도 천은주선생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안고 고려의학발전과 사람들의 건강, 생명을 지켜가는 길에서 삶의 행복과 락을 찾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푸른숲의 주인들

우리 조국에는 향토애를 지니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다. 그들 속에는 평안남도 신양군 산림경영소 청년양묘 작업반의 처녀들도 있다.

사실 처녀들이 산림조성사업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산림조성이 장기적이고 품이 많이 드는 어려운 일이어서 남자들도 선뜻 나서기 주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창 꽃처럼 피여나고 꿈도 많은 처녀들이 주저없이 일에 나선 것이다.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에서

녀들은 주저앉으려고까지 하였다. 그럴 때면 리신옥작업반장은 김춘희, 한금정분조장들과 마음을 합쳐 힘들어하는 동무들을 적극 도와주었고 그들의 생활을 친언니의 심정으로 돌봐주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진행하였다.

군과 산림경영소의 일군들도 그들의 합숙을 훌륭히 꾸려주고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면서 안착되어 일



삼목채취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반원들

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며밀어 주었다.

일군들의 관심은 처녀작업반원들이 산림조성사업에 분발해 나서게 하였다.

그들은 비경지의 돌을 들어내고 검불을 걷어내며 나무모발을 조성해나갔다. 그리고 산림조성과 관련한 지식을 배우면서 정성다해 나무모들을 길러 산들에 옮겨심고 가꾸었다. 그러다니나 처녀들의 얼굴은 해辨别에 타 거밋거밋해졌고 작업복은 늘 땀에 푹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키워낸 나무모들이 산들마다에서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맡은 일의 보람을 느꼈고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갔다.

그것은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처녀작업반원들은 산림경영소 일군들의 지지와 방조속에



온실에서의 단지모생산

현대적인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 야외적응구, 온실들을 짓은 기간에 완공하여 종전에 비해 훨씬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그런데 처녀작업반원들은 공사를 다시 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양묘장의 나무모발들에 자연흐름식판수체계를 도입하지 못한 량심의 가책으로 인한 것이였다.

그때 경영소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군들은 나라의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자연흐름식판수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하였어도 그 공사가 아름찬것이여서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던것이였다. 그런데 처녀작업반원들이 한W의 전기도 귀중히 여기며 공사를 다시하겠다고 나섰던것이였다.

사실 처녀들은 그동안 일솜씨도 늘었고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하여 산림경영소의 모범으로 되고있었다.

처녀작업반원들은 경영소의 기술자, 종업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기도 하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해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며 낫파 밤이 따로 없이 물길공사를 진행해나갔다.

그 나날 시련과 난관도 있었지만 처녀들은 모든것을 이겨내며 끝내는 양묘장에 동력을 전혀 쓰지 않는 자연흐름식판수체계를 세워놓았다. 그 과정은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날이였으며 푸른 숲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지금 이곳 처녀작업반원들은 더 훌륭할 래일의 계획을 안고 고향산천에 자기들의 진정을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침명



선수후비육성에 힘을 넣어



력기훈련장에서



지상호케이선수들

높은 목표를 안고



대동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는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내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학교 졸업생들중에는 국제축구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명수들이 많다.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김광민감독도 이곳 출신이다.

얼마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장정남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55(1966)년에 창립된 후 조국의 체육발전과 더불어 수십년의 년륜을 새겨온 학교는 선수후비육성에 모를 박고 전국적인 경기들마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년대를 이어오며 전망성있는 선수후비들을 키워 체육단들에 보내주고 있

축구선수들



습니다.》

주체106(2017)년에 만도 청소년선수권대회 16살미만 남자축구경기에서 1위, 청소년선수권대회 14살미만 여자축구경기에서 1위, 제54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력기, 지상호케이경기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하였으며 수십명의 전도 양양한 선수후비들이 체육단들에 소환되어갔다.

우리와 동행 하였던 김광욱부교장은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학교에서 지도교원 대렬을 능력 있는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 속에서 록화시청, 경험 토론회, 기술토론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지도교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인 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원들이 전망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모를 박고 학생들에게 나이와 체질 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 지도를 주면서 특기기술을 소유한 학생들을 키워낸 데 있다

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력기훈련장에 이르렀다.

람홍색공화국기가 벽면에 걸려져 있는 훈련장에서 학생들은 다리힘키우기, 구간끌어올리기와 추켜울리기 훈련을 맹렬히 하고 있었다. 리영철지도교원은 학생들에게 높은 정신력을 지닐 때 훈련과 경기에서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지상호케이 훈련장에 들어섰다.

김광욱부교장은 지상호케이 종목이 주체100(2011)년부터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에서 7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김현철지도교원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귀띔해주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공련락과 쳐넣기 훈련을 주느라 김현철지도교원의 온갖 땀으로 흠뻑 젖

어 있었다.

훈련의 쉴 찬에 우리는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 3학년 7반 최현희 학생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말라고, 땀방울의 무게이자 금메달의 무게라고 말하군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표는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축구, 탁구 등 여러 훈련장들에서도 뛰어난 선수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한 지도교원들의 진지한 모습과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과 더불어 체육강국으로 솟구칠 조국의 래일이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글 본사기자 엄향실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조각신동 오길성



오길성

창광유치원에는 색진흙으로
각이한 모양의 조각들을 빚어
내는 재능을 가진 오길성어린
이가 있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물이든
지 한번 보고 실물과 꽉같이 빚
어내는 그를 두고 조각신동이
라고 부르고 있다.

자그마하고 깜찍한 두손으로
색진흙을 주물러 사람이며 동식
물을 짧은 시간에 연방 빚어내는
는 그의 모습은 마치도 이름난
조각전문가를 련상케 하였다.

그가 빚은 색진흙조각 《민
속놀이》, 《만리마 씽씽》,
《소년장수》, 《말》, 《기
린》, 《사슴》, 《공룡》 등은
생김새며 감정표현, 운동감에
이르기까지 생동하여 꼭 실물을
눈앞에서 보는것만 같았다.

특히 조각 《신이 나지요》
와 《호박풍년》은 인물조각을

잘 빚어내는 길성어린이의 특
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로라스케트를 잘 탈줄 몰라
한발을 들고 금시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자세를 가까스로 유지
하고있는 총각애와 그 모양이
우스워 손으로 입을 막고 터
져나오는 웃음을 참는 처녀애의
모습을 형상한 《신이 나지
요》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실감있게 형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각 《호박풍
년》에서는 자기 몸무게만큼
되는 큰 호박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젓히고 힘들게 걸으면서
도 큰 호박을 마련한 기쁨에
넘쳐있는 꿀꿀이의 모습을 생
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보다
립체공간표상능력이 뛰어나고
판찰력과 기억력이 남달리 좋
은 그의 색진흙조각들은 하나

하나가 질감이 나면서도 섬세
하다.

아직은 6살, 한창 부모들에
게 응석을 부리고 장난이 세
찬 시기의 어린이의 솜씨라고
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림그리기에도 뛰어난 재
능을 가지고 있는 길성어린이는
2살때에 벌써 연필을 쥐고 말,
뼈스 등을 신통하게 그려 부
모들과 주위 사람들을 놀래웠다
고 한다.

지금도 그는 조각을 빚는 여
가시간이면 동화그림책과 아동
영화에서 본것을 방불히 화판
우에 웁겨놓고 있다.

그가 그린 연필화 《우리 화
성 나간다》는 광명성절경축
제7차 전국소묘축전에 입상하
였다.

길성어린이에게 색진흙조각
을 만드는 방법과 그림그리기

선생님과 함께 색진흙조각을 만들어본다.



오길성이 만든 색진흙조각들의 일부

를 배워주고 있는 정영애교양원
의 말에 의하면 그의 뛰여난 조
각술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그
림재능이 깔려있다고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이 흐를수록 길성이의

재능을 더 활짝 꽂피우게 될

조각솜씨는 유능한 교양원의
지도와 방조속에 몰라보게 발
전하고 있다.

금 많다.

밤시간에 수분이 부족되면 피의 점도가 높아져 혈소판
의 응집력이 학진되므로 분류성동맥경화증환자의 피출에
서는 쉽게 혈전이 형성된다.
로인들의 경우 밤중에 일어나 끓인 물을 한고루 마시
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장 및 뇌혈관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질병예방에 좋은 밤중 음식

연구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대비연구를 진행하였
다. 즉 한조는 밤중에 일어나 끓인 물 250ml를 마시게 하
고 다른 한조는 물을 마시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도
록 한 다음 아침에 그들의 피농도를 검사하였다.

결과 물을 마신 사람들의 피농도는 현저하게 낮았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숨을 쉬고 땀을 흘리는데 이
과정에 몸에서 수분이 빠진다. 게다가 로인들의 경우 저
녁에 자주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므로 수분소모량도 그만

* * *

교단에 선 어머니의 모습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정답게 안겨 오는 법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교무과 지도교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박광옥박사의 아들 홍준철(29살)의 가슴속에도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

30여년을 변함없이 교단에 서 있는 어머니,

홍준철은 한생을 교육자로 값 높이 살아오신 외할머니처럼 한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안락보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사업에 삶의 순간순간을 바쳐가는

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다.

박광옥녀성은 20대처녀시절부터 50대 중엽에 이른 오늘까지 정보학부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실력으로 새 기술성파들을 련이어 내놓아 박사로, 2. 16과학기술상수상자로 성장한 유능한 정보기술전문가이다.

그는 과학연구사업뿐만 아니라 강의에도 출연하고 있으며 학과과정안지도와 학위론문지도 등으로 언제나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들이 한 자식을 키우는데만도 오만공수가 든다고 하였는데 대학에서는 제자

들을, 가정에서는 아들을 나라의 억센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내세운 박광옥녀성이다.

하기에 어릴 때부터 교단에 서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 정다운 모습으로 눈에 익혀온 홍준철은 지난해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김은하라는 처녀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광옥녀성은 이제 다가오는 어머니날에 아들이 드리는 꽃다발과 함께 떡돌같은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의 인사까지 받게 될 것이다.

홍준철의 어머니 박광옥녀성뿐이 아닌 이 나라의 수천만 어머니들이 사회와 집단, 가정과 생활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으니 조국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것 아닌가.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을 우러를수록 홍준철은 자기의 어머니 박광옥박사를 비롯한 조선녀성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행복이 창조되는 이땅의 아름다운 래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권해



유모아

과학적 주권

신생: 수학이란 과학의 한개 학문입니다. 과학이란 의심 할바가 없습니다. 례를 들어 한사람이 열흘동안 지어야 할 집을 열사람이 짓는다면 하루에 다 짓을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학생: 의심 할바없이 그렇게 추리한다면 배 한척이 열흘이 걸려야 견딜 수 있는 태평양을 배 열척이 함께 건는다면 하루에 견딜수 있지 않습니까.

* * *



중국 베이징시 동성구역 봉딩호텔 539호실 최철호삼촌 앞

삼촌의 모습을 그려보며

삼촌,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삼촌어머니와 사촌동생들도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삼촌의 건강은 어떠한지. 건강상관계로 술을 입에 대지 못하던 삼촌이 몇해전 조국에 오셨을 때 제가 부어주는 술만은 드시면서 웃음짓던 모습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삼촌은 저에게 이제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못하다니 마음뿐이라고,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국을 위하는 삼촌의 그 진정이 저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해외에서 살면서 민족의 근본을 잊지 않고 애국의 길을 걷는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삼촌은 한생을 그렇게 살아오시였고 자식들과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촌, 지금 제가 사는 성천군에서는 군을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을 새로 건설하는것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모든 강하천들의 제방공사와 수십개의 학교와 분교건설이 이미 끝난데 이어 공장과 살림집

등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특히 살림집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사실 군자체의 힘으로 이런 대공사를 진행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군내인민들은 나라에서 도



와줄것만 바라지 않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이 사업에 너나없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향을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 자동차운전수인 저는 공장의 화물을 나르는 여가시간이면 공사에 필요 한 자재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자식들도 살림집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하루일을 마친 후이면 공사장에 나가 일을 찾아서 하는가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스스로 맡아안고 해결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습니다. 열마전

에는 집사람과 딸애가 지원물 자를 마련해 가지고 공사장에 나갔는데 건설자들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 삼촌도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기뻐하셨을것입니다.

삼촌, 제손으로 행복을 창

조해가는것만큼 더 큰 보람과 긍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든것이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가정은 앞으로도 고향과 나라를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언제이건 한번 삼촌이 우리 고향땅에 와 이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을 돌아보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럼 그날까지 삼촌이 건강에 특별히 류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남도 성천군 읍
98인민반 최용남조카 올림

고향땅에 깃든 애국의 마음

고향소식을 기다릴 동포들의 마음을 안은 우리의 취재길은 평안북도 천마군으로 이어졌다.

넓은 벌을 옆에 끼고 달리던 빠스가 동림군을 벗어나 천마땅에 들어서자 우리의 눈앞에는 높고 낮은 산발들이 펼쳐졌다.

볼만한 것은 산들마다에 빼곡이 들어앉은 잣나무와 이깔나무, 소나무림이었다.

그 푸르른 수림은 우리가 천마읍에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빠스에서 내려 읍거리의 중심에 들어서는 우리를 군의 일군인 김정철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산들에 나무가 정말 많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긍정하며 특히 군의 잣나무림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데 그 면적만 해도 수천정보나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것 또한 굉장히 하면서 우리를 천마군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으로 이끌었다.

삼교천이 흐르는 읍거리의 일부



10여정보나 되는 양묘장에는 나무모온실과 원형삽목장, 야외재배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이슬을 머금은 잣나무, 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참대버드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는 듯싶었다.

양묘장의 종업원들은 자연수와 졸짱에 의한 판수를 실현하여 그 어떤 가물에도 끄떡없이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을 활용해 꾸려놓고 산림복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놓고 있었다.

양묘장의 일군인 김정철은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춘 결과 종전에 3~4년 자래우선 나무모를 2년안에 키울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면서 올해 봄철에만도 125만그루의 나무

모를 생산하여 군안의 여러 기관, 단위들에 공급하였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소에서는 숲이 울창한 백자리에 유용동물보호구를 설정하고 노루를 비롯한 유용동물들과 판상용동물인 꿩을 보호증식하고 있었다.

천마군에서는 산을 끈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나라의 정책을 받아들어 축산업 발전에도 힘을 넣어 소,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었다. 최근에만도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통이 크게 하여 몇 해 사이에 소와 염소의 마리수를 거의 배로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비록 소박하게 하는 말이였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같은 애국의 열정이 담겨져있었다.

진정 그들이 지닌 애국의 마음이 있어 천마군의 산들이 그리도 푸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식료공장, 종이공장, 가구공장 등에서는 자기 지방의 원료로 생산을 장성시켜 군내인민들의 살림을 늘여나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는 은덕원이 개전되어 산골군의 인민들도 도시부럽지 않은 편의봉사를 받고 서고리에는 천마

군인민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



숲사이에 양묘장을 만들어놓고



군가구공장에서의 제품생산

천마소학교 탁구소조원들



그가 걸는 길

계획사업을 맡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현지에 나가본다.

평안남도 신양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재일 계획과장도 우리가 찾아갔을 때 현지로 나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한 달 동안에 만도 여려 번째 이런 걸음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나이에 비해 꽤 정정하고 헐기에 넘쳐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70살을 넘기였다. 그의 보기에는 밀기 어려울 정도였다.



계획사업에서 빈틈이 없도록

휴양소까지 새로 일면서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천마소학교의 나어린 탁구소조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소학교체육학급체육 경기대회에서 매번 순위권에 들어 군안의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었다.

최근년 간에만도 학교의 여러 탁구소조원들이 혁명체육단과 화불체육단을 비롯한 중앙급체육 단들로 소환되어 그곳에서 자기의 재능을 꽂고자 퍼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군내인민들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 고장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 가려는 이곳 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향이었다.

우리는 천마군인민들이 지닌 그 애착심과 지향에 의해 더 좋아질 천마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리재일

파도 마주앉아 다음해 농업생산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하였다. 그 과정에 지난 해와 올해의 농사진행정형을 분석도 해보고 원인도 찾아보면서 계획작성의 기초를 마련해가는 것이었다. 사실 이 농장에는 지난해 이동식 탈곡기의 성능이 떨어진데로부터 애써 가꾼 난알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

그것이 농장의 농업생산계획 수행에 일정하게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하여 얼마전부터 그

의 발기에 의해 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이동식 탈곡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농장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안타까워 그는 자기가 직접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한 부속품들도 마련하며 탈곡기 성능개선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내밀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가 오늘이 농장을 먼저 찾게 된 이유의 하나도 바로 거기 있었다. 그는 기술혁신조 성원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던 기계장치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어 탈곡기 성능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오늘 걸리고 있던 문제를 풀고보니 얼마나 마음이 즐거

의 품에 안긴 사람이라고, 청춘시절에 당시의 군농기계 작업소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농기계들을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때 자기 작업반에서 만든 강냉이 영양단지 찍는 기계를 보아주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분에 넘치게도 높은 평가의 교시를 주시였고 전국에 널리 도입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로정인 백석협동농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농장은 해발 높이가 500m 이상 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하여 가기가 조련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한 통운협동농장에 비하면 이 농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힘

지대적 특성으로 하여 해비침몰이 낮고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하여 강냉이 농사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농장에서는 그의 도움으로 흔한 청풀을 밭들에 깔아주어 지력을 높이였고 장마철에 흙이 비물에 썩어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으며 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거多득의 효과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농작물의 빛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용비료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안을 준비해 가지고 또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이 농장에서 일을 보고 수십리 길을 걸어 해발 높이가 800m 이상 되는 곳에 있는 통운협동농장의 토지개량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야 한다고 한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매 농장들의 새년도 계획작성사업이었다.

몸은 늙었지만 비상한 정력으로 맡은 일을 해나가는 그의 정신세계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였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토록 쉬임없이 농촌길을 걸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늙었다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세위인들의 위업을 관찰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있을 것이며 그 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군의 래일을 그려본다.

운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터득했던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은을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자기는 본래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

든줄 모르고 걸음을 다그쳤다.

그가 이렇게 걸음을 걸은 것은 농장들에서의 성과도 커질 것만은 자명하였다.

백석협동농장은 지난 시기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교육에 큰 힘을 넣고 있는 고국

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대학의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곳에는 소학교교원, 유치원교양원들을 양성해내는 대학으로서의 모든 물질기술적 토대가 훌륭히 갖추어져 있었다.

번듯하게 일떠선 교사들과 인공잔디를 입힌 시원한 운동장, 다기능홀로 꾸려진 체육관, 도서관, 실내수영장과 기숙사 등 대학의内外부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대학의 교원들과 학생들이 지혜를 합쳐 작성하였다는 교육내용과 방법이었다. 그들의 착상과 노

력에 의해 마련된 소학교교실, 유치원교실, 교육평가실, 어머니교실, 가상교실들에서 대학생들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심리를 가상정황과 실지정황속에서 체험하고 있었고 그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황처리능력까지도 키워가고 있었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낀다고 나는 평양교원대학 참관을 통하여 고국이 교육에 얼마나 큰 힘을 넣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다음해에 우리 조선족 학교의 교원들, 학생들과 함께 고국을 다시 찾아오겠다.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김용분

훌륭한 제도가 넣은 결실이다

어느 작가나 좋은 글감을 찾았을 때처럼 기쁜 때가 없을 것이다.

소학교에서 교무주임을 하면서 아동문학을 전공해온 나 역시 좋은 글감을 발견했을 때가 제일 기쁘다.

그것은 좋은 글감이 좋은 작품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 가도 글감을 찾느라고 늘 머리를 써왔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과정에 나는 고국에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도가 좋을 수록 좋은 글감들도 무진장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고국에서 나는 글감《부자》가 되었다.

처음으로 밟아본 고국이여서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만경대고향집, 주체사상탑, 평양교원대학을 비롯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에는 좋은 글감들이 많았다.

아이들 속에서도 좋은 소재를

많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모란봉에서 만나본 소학교 학생들이 그러하였다.

학생들은 우리를 만나자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인사성도 밝고 웃차림도 단정한 그들에게 나는 순간에 정이 들었고 친숙해졌다.

그들도 내 얼굴에서 류다른 친근감을 느꼈는지 별로 잘 따랐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과정에 나는 고국에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도가 좋을 수록 좋은 글감들도 무진장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번 고국방문기간에 나뿐만 아니라 대표단의 작가들 모두가 글감《부자》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 고국에서 찾아온 좋은 글감들에 토대하여 아이들과 민족을 위한 글을 더 많이 쓸 결심이다.



중국 길립성 룽정시 최길록

처녀무용수의 지향

무대는 숨죽은 듯 조용하였다. 칠판처럼 한 치 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이때 무대 가운데로 한 줄기의 빛이 비쳐들었다. 그 빛을 받으며 두 처녀무용수가 관중들의 시야에 안겨왔다.

그들은 둘이 아닌 하나처럼 보이었다. 두 무용수가 펼치는 률동이 마치도 하나의 몸에 활력을 부어주려 뻗어나간 피줄을 련상케 하여주었던 것이다. ...

지난 4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총련 금강산 가극단의 리화선배우는 고화영 배우와 함께 하나의 지맥이 잇닿아있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로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되어 70여년동안 둘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비극과 통일의 절박성을 내용으로 하는 2인무 《피줄도 하나》를 특색 있게 형상하였다.

이 작품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리화선배우는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20대의 처녀무용수이다.

리화선동포가 무용과 인연을 맺은 것은 7살 때부터였다.

그가 태여날 당시 부모들은 총련 금강산 가극단의 성악, 무용 배우들이었다.

리화선동포는 일본 효고현 고베시 교외의 조선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며 어머니에게서 무용을 배웠다. 그때 어머니는 학생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 무용교실을 자체로 운영하면서 조선무용을 배워주고 있었다.

성격이 조용하고 무엇인가 하는 일에 열중하는 성격인 그는

열심히 무용수업을 받아 3년 후부터 조국에서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조국의 설맞이 공연 무대에서 날로 꽂혀나가는 자기의 재능을 펼쳐보인 그는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의 권위 있는 교수들에게 수년간 강의도 받았다.



리화선

리화선배우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릴 때에는 조국의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된다는 기쁨으로 밤잠을 못 잔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조선무용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인민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이 역땅에서 예술을 하는 것이 비단 개인의 재능과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조국의 사랑 속에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사는 재일조선학교 학생들 그 누구나와 꼭 같이 조국에서 보내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과정에 조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그는 금강산 가극단

에서 배우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국의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한 노력과 열정을 바쳐 예술적 기량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하여 그는 2년 전 2. 16 예술상 수상자가 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금강산 가극단에서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한 달이 멀다 하게 지방순회 공연길에 오를 때마다 리화선동포는 그 지역 조선학교들의 초빙 강의에도 출연하였다. 그는 자라나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민족의 뿌리 깊은 조선무용을 하나라도 더 많이 깊이 있게 배워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의 진정에 깊이 감동된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은 《우리 무용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는 무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과 동포들에게 하나의 무용가락에도 민족성과 조국의 해외공민이라는 자부심을 담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곤 한다.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존엄 높은 조국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민족 분별의 아픔을 가시는 조국통일 성업에 전체 재일동포들도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할 지향을 안은 그였기에 2인무 《피줄도 하나》를 한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형상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리화선배우는 《세대가 바뀌어도 충현의 대는 더욱 굳건히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직접 이름 지어주신 금강산 가극단의 한 성원이라는 궁지와 영예를 안고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연옥

나는 조선민요를 사랑한다

나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노래 《노래하세 대홍단》과 《새타령》을 불렀다.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축전조직위원회 일군들은 부르기 힘든 민요를 정말 잘 불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들으며 나는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내가 처음 민족성악을 하게 된것은 조선민요에 끌려서였다.

조선민요는 선률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우아할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노래마다 독특하고 특색이 있으며 음률이 잘 째여있는데다가 민요선률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로 되고있는 굴림이 있어 민족적인 멋을 더욱 돋구어주었다.

그래서 무용을 하다가 민족성악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욕망과 실천파는 거리가 멀었던것이다.

그러던 차에 나는 내또래 학생들의 류행에 이끌려 다른 나라에 류학을 갔다.

자체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공부하자니 혈치 않았지만 나는 류학을 하면서 조선민요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류학생들은 내가 민요를 부르기만 하면 박수를 쳐주고 정말 듣기도 좋고 감동도 크다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들군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민족만큼 예술적감정이 풍부한 민족은 없는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정말 나자신도 한편한편의 노래를 부를수록 조선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였다.

자기것에 대한 애착은 무서운 정열을 낳았다.

나는 류학기간 민요의 고유한 창법을 더 잘 터득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결국 류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희망대로 민족성악교수가 될수 있었다.

중국에 와서 동포자녀들에게 민족성악을 배워주는 나날은 나에게 민족적인것을 더욱 사랑하게 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나는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조선민족



의 역사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개신세만도 못하였던 조선민족을 구원해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포자녀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안도록 하였다.

하루하루 민요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많아졌으며 개인적으로 자식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오는 학부형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기뻤다.

자기의것을 지키고 빛내여나가려는 사람만이 자기 고국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워주었다.

경찰을 하는 나의 오빠도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륙음해서는 결함이 무엇인지 평가해달라고 나에게 보내오곤 하였다.

나는 류다른 《학생》인 오빠에게도 우결함을 적어 보내주곤 하였다.

하고싶어 시작한 일이여서 그런지 언제 한번 힘든줄을 몰랐다.

이제는 내가 배워준 학생들이 나와 같은 위치에서 학생들을 배워주기도 하고 예술단들에서 배우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들과 함께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오를 때면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곤 한다.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곳에서는 민족의 슬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학 (1)

조선봉건왕조시기는 조선의 중세력사에서 마지막으로 존재한 봉건국가시기이다.

1392년에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운 리성계일파는 자기들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일련의 개혁적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왕조 초기인 15세기는 조선중세력사에서 봉건국가의 통치력이 가장 강한 시기로 되였다.

이 시기 인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나라의 군사력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문화분야에서도 출판인쇄기술과 천문학, 의학 등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16세기에 들어와 봉건국가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인민들은 1592년부터 7년동안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을 벌리였으며 17세기에 들어와서도 거듭되는 외세의 침공을 물리치는 전쟁을 진행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상품화폐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수공업, 광업분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봉건제도는 그자체의 본질적모순과 인민들의 줄기찬 반봉건투쟁으로 하여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학은 당시의 사회력사발전과 문화발전의 제반력사적조건에 의하여 크게 두 단계 즉 조선봉건왕조 전반기(15세기-17세기 전반기) 문학과 후반기(17세기 후반기- 19세기 전반기) 문학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문학은 조선봉건왕조가 집권한 첫 시기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 인민문학분야에서는 민요의 독특한 형식인 참요 《남산의 정》, 《총의가 사모냐》, 《노구》 등이 창작되어 인민들속에서 불리워졌으며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칭 나네》를 비롯한 민요들과 설화 《곽재우와 리씨부인》, 《외귀 온정터와 선녀바위》와 같이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현실을 반영한 반침략애국주의적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또한 《봉물진상》, 《노복의 항

재능이 남김없이 발양되고 민족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다.

자기의것에 애착을 가지라. 조선민요를 사랑하라.》

거》, 《무포징수》와 같이 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죄행을 폭로비판한 민간극이 창작공연되었다.

이 시기 또한 조선고유의 민족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를 계기로 시가문학분야에서 우리 글을 표기수단으로 한 국문시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5세기에 정국인이 창작한 《상춘곡》으로부터 시작된 중세고유의 국문장가형식인 가사가 발전하여 16세기에 이르러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에서 그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고려시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시조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리의 《고산구곡가》, 리현보의 《통암가》 등 우수한 성과작들을 남기였다.

이 시기에 또한 시가문학분야에 신사임당, 황진이, 허란설현 등 녀류작가들이 출현하여 봉건사회의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지향을 시조와 기타 시문학형식에 담아 노래하였다.

한자시분야에서는 김시습의 《산골농민의 고생》, 성간의 《원한의 노래》, 리석형의 《영치기노래》, 어무적의 《류민탄》, 《매화부》, 리행의 《들은 이야기》, 리달의 《풋보리 베는 노래》, 《이삭줏는 노래》 등 봉건적착취와 약탈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불행한 생활처지를 진실하게 노래한 사실주의적경향의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한편 산문분야에서는 서거정의 《동인시화》, 성현의 《옹재총화》 등 수많은 패설작품집들이 나왔으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비롯하여 단편소설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소설문학은 15세기에 이어 16세기에도 계속 발전하였는데 림제의 《재판받는 쥐》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풍자적수법으로 양반통치배들의 부패상을 신랄히 폭로비판한 우화소설이 나왔으며 17세기초에는 임진조국전쟁의 력사적현실을 비교적 폭넓게 반영한 국문장편소설 《임진록》이 창작되어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었다.

사회과학원 실장 교수 박사 박길남

나는 앞으로 수많은 민족성악후비들을 키워내여 그들이 민족을 알고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

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 민족성악교수 김순희

마지막 발명품

조선 봉건왕조 초엽인 1441년 8월 18일, 이날 세계 최초의 발명품인 측우기가 완성되었다.

임금 세종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문관측을 맡아보는 서운관에 나와 측우기를 보면서 매우 만족해하였다.

높이 2자(약 40cm), 직경 8치(약 16cm)의 쇠로 만든 원통그릇 모양의 측우기는 그안에 고이는 비물의 량을 가지고 내린 비량을 측정하는 기구였다. 측우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물에 땅이 젓는 정도를 보고 비량을 짐작했을 뿐인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비량을 정확히 알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영실이라는 것 마흔에 난 천민 출신의 기술자가 거의 1년 가까이 애쓰던 끝에 드디어 측우기를 완성하여 임금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다.

20년 전까지만 하여도 장영실은 먼 남해가에 자리잡은 동래현에서 관청 소속의 쟁인 바치로 일하면서 짬만 있으면 기계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금과 은을 제련하는 기술도 높았고 여러 가지 무기 제조와 수리는 물론 성을 쌓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일 등에서도 막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점차 그의 이름은 한성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인 세종은 완고한 원로 대신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끊임없이 그에게 상의원 별좌의 벼슬을 주었다.

영실은 자기의 재능을 귀중히 여겨 벼슬까지 준 임금의 은

혜를 갚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뒤로 미루고 고심 어린 탐구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창안 품들을 내놓았다.

『자격루』라는 자동물시계와 『옥루기륜』이라는 천문시계 등을 창안한 영실은 1440년에 호조의 의뢰에 의하여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와 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구를 연구제작하는데 착수하였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그는 1441년에 비량을 측정하는 기구인 측우기와 강의 수위를 재는 량수표를 만들었다.

측우기는 서운관뜰에, 량수표는 마전다리 서쪽과 한강기슭에 설치되었다.

조정에서는 곧 한성과 각지 방관청들에 측우기를 통일적으로 설치하여 비량을 정확히 측정 보고하는 제도를 세웠다.

장영실이 발명한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였다.

이탈리아에서 베네데토 까스텔리가 만든 기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비물의 량을 측정한 것은 1639년이였고 또 강우량을 종합적으로 장악하는 체계를 세운 것은 훨씬 후의 일이였다.

그런즉 이보다 근 200년이나 앞서 과학적 측정 기구를 발명하고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 집계하는 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한 장영실은 파연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그의 과학 기술 지식과 창조력은 한창 원숙기에 이르고 있었 다. 앞으로 그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더 창안하겠는지는 예

측할수 없었지만 그의 창조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매우 커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사건이 벌어졌다.

측우기를 발명한 이듬해인 1442년 봄 어느 날 흄경각에 들려 고르롭게 움직이고 있는 천문시계 『옥루기륜』을 살펴본 영실이 서운관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여려 명의 라졸들이 달려들었다.

영실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언성을 높여 물었다.

『이게 도대체 웬 일이냐?』

명망 높은 기술자인 장영실을 모르는 바 아닌 라졸들은 무엇이라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매우 면구스러워하며 걷기만 하였다.

영실의 죄인즉 임금이 리용하는 가마를 잘 만들지 못하였다는 것이였다.

하여 그는 죄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벼슬에서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궁궐을 떠나는 날 영실은 서운관뜰 안에 놓여 있는 측우기를 어루만지면서 『아, 네가 나의 마지막 창안 품이로구나!』 하더니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말하듯이 정답게 속삭이였다.

『나는 있지만 너는 영원히 남아 이 나라 농부들에게 풍년을 가르쳐주렴. 그걸 믿기에 나는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난다. 잘 있거라.』

* * *

평안북도의 역사 유적을 찾아서 (12)

- 보현사 8각 13층탑 -

묘향산에는 옛 건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된 탑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현사의 8각 13층 탑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중세기의 발전된 석조 건축술을 보여주는 이 탑은 고려 말에 세워졌습니다.

화강석을 섬세하게 다듬어 13층으로 올려 쌓은 돌탑의 총 높이는 8.58m(그 중 탑몸의 높이는 6.58m)이며 8각형으로 된 밀단 한변의 길이는 1.2m입니다.

이 탑은 형식과 장식 등 모든 면에서 고려 말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탑의 아래 밀단은 바닥돌 위에 3층으로 포개놓은 대돌로 되어 있고 웃밀단 밀돌의 웃면에는 아래로 드리운 련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의 맨 위의 머리 부분에는 청동으로 만든 탑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8각으로 된 매 지붕돌의 추녀 끝마다에는 바람방울(풍경)이 달려 있는데 그 수는 모두 104개입니다. 이 방울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여 주위를 더욱 경쾌하게 하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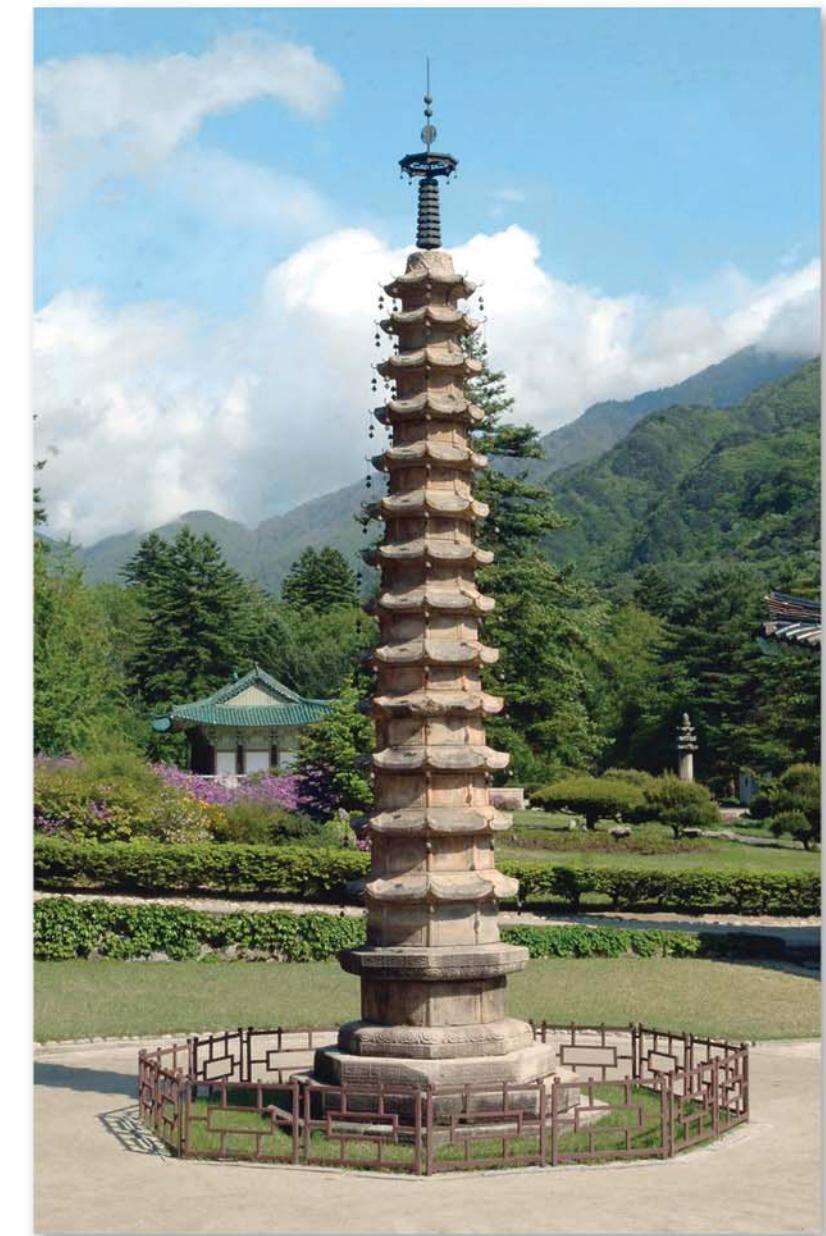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적들의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추녀 끝에 달린 바람방울과 탑머

리에 있던 장식품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탑은 조국의 민족 유산 보호 정책에 의하여 원상대로 복원되어 묘향산을 찾

는 사람들에게 조선 민족의 뛰어난 건축예술적 기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 기자 김슬기



조국의 천연기념물 (22)

이번호에서는 강원도의 천연기념물들인 창녀소나무림, 해금강솔도, 련주담, 금강산닭알바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녀소나무림은 강원도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 신계동입구에 있습니다.

나무림은 단순림으로 되여 있는데 크고 오래 자란 나무와 그밀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30m이고 뿌리목둘레는 3.2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3m, 나무갓너

비는 13m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우거진 이 나무림은 먼 옛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칠 창파 병쟁기들을 보관하였던 곳이라고 하여 창녀솔밭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그것

으로 하여 이곳 사람들은 이 솔밭에서 한대의 나무도 다치지 않고 보존해왔다고 합니다.

창녀소나무림은 오늘 금강산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자연풍치임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보로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해금강솔도는 강원도 고성군읍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크고작은 기묘한 바위들이 있고 그 일대에는 소나무가 자라고있으며 바다새들도 서식하고있어 류다른 경치를 이루고있습니다.

해금강솔도는 중생대에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화강암이 오랜 세월 비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쟁기워 이루어진 자그마한 바위섬입니다. 섬은 바다물면보다 58m정도 솟아있습니다. 흙이라고는 거의 없이 온통 바위들로 뒤덮인 이곳에 소나무가 억척같이 뿌리를 박고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습니다.

솔도는 해금강의 경치를 대

표하는 섬으로서 풍치뿐아니라 비바람과 바다물에 의한 바위의 깎임작용, 소나무의 생장상태를 연구하는데서 의의를 가집니다.

련주담은 강원도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 옥류동에 있습니다.

담은 오랜 기간 골짜기로 흐르는 빙하와 물의 깎임작용에 의하여 생겨난 2개의 담소로 되여있으며 이 담소들이 마치 도파란 2개의 구슬을 뛰어놓은듯 잇닿아있다고 하여 련주담이라고 부릅니다. 우의 담소는 길이 10m, 너비 5~6m정도이고 깊이가 6m이며 아래의 담소는 길이 20m, 너비 8~9m정도이고 깊이가 9m로서 우의 것보다는 큅니다. 그리고 두 담소사이에 있는 폭포의 높이는 3~4m입니다.

련주담은 옥류동골짜기에서 독특한 경치를 이루고있으며 또 주변산세와 잘 조화되어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돋구어주는 명소입니다.

금강산닭알바위는 금강산 외금강의 온정다리에서 구룡연으로 가는 입구의 왼쪽 닭알바위 산에 있습니다.

이 닭알바위는 굳기가 서로 다른 화강암이 오랜 기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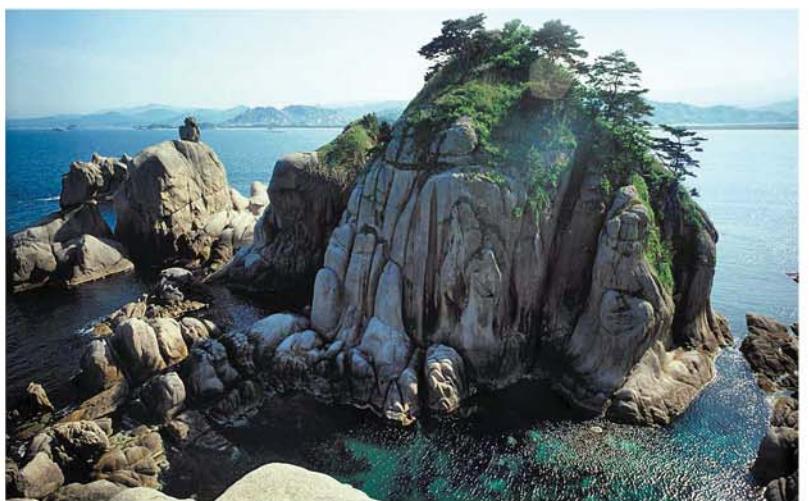
바람에 깎이워 이루어진것입니다. 바위는 타원모양으로서 높이는 7m이며 긴 둘레의 길이는 20~21m이고 짧은 둘레의 길이는 15m입니다.

집채같은 닭알바위는 평탄하고 넓다란 바위우에 한쪽모서리를 붙이고있으므로 금방 떨어질것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안정되어있기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굴러떨어지

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있습니다. 어느쪽에서 보아도 닭알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닭알바위라고 불려왔으며 예로부터 많은 시와 노래로 전해져왔습니다.

기묘하고 신비롭게 생긴 금강산닭알바위는 풍치적으로 특이할뿐아니라 학술연구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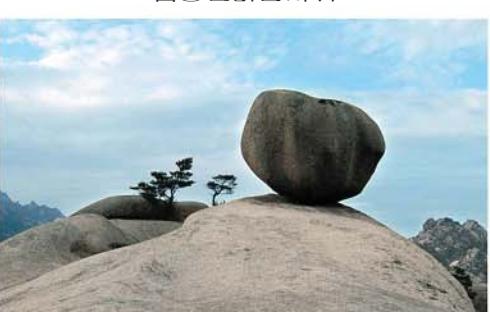


해금강솔도

창녀소나무림



련주담



금강산닭알바위



《김치깍두기 맛 참 좋다!》



저 건너집 김첨지 두 냥주가
아침을 먹을 때
김치깍두기 맛 참 좋시다
...
만반전수 차려놓고
김치깍두기 없으면 아주 맛
없네

동포여러분, 김장철이 다가
온 요즘이 《김치깍두기노래》
를 들으니 초겨울의 깍두기맛이
떠올라 감질이 날 지경입니다.
언제인가 저는 조국을 방문
한 한 재미동포와 동석식사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진수성찬을 차린 식탁우에는 깍
두기도 올라있었습니다.

그 동포는 《조국에 올 때마다 깍두기를 먹군 하는데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히오. 깍두기의 맛이 오죽 좋았으면 조국에서 김치깍두기에 대한 노래까지 나왔겠소.》라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수십 가지를 헤아리는 조선김
치가운데서도 깍두기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맛, 눈맛을 끄
는 매력을 가지게 된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깍두기만드는 방
법에 있는것입니다.

깍두기라는 말은 무우를 네
모나게 썰어서 고추가루를 비
롯한 양념과 젓갈을 넣고 버무
린 다음 국물을 따로 봇지 않
고 담근 김치라는 뜻에서 지어
졌습니다.

때문에 깍두기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달고 단단한 무우를
끌라 깨끗이 씻은 다음 사방
1.5~2cm정도의 크기로 네모
나게 썹니다. 파는 흰 줄거리
부분만 채치고 배는 껍질을 벗
겨 모나게 썰어 소금물에 담그
어 놓습니다. 모나게 썬 무우에
좀 굽게 봉은 고추가루를 두고
빨갛게 물을 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깍두기는 다른
김치를 담글 때와 같이 소금으
로 절이거나 고추가루와 젓갈,
파, 마늘, 생강 등을 넣어 만
든 양념을 두지 않고 고추가루
로 먼저 빨갛게 물을 들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다소나마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혹 모르
시는분들을 위해 강조한다면 그
것은 생무우에 소금을 먼저 두
면 물이 생기는데 그러면 고추
가루의 빨간색이 무우에 잘 스
며들지 않기때문입니다.

깍두기는 다른 김치에 비해

고추가루를 많이 두고 벼무리
기때문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
게 보입니다. 다음 여기에 채
친 파, 다진 마늘과 생강, 젓
갈, 배 등을 넣고 고루 버무린
다음 소금을 쳐서 단지에 꾹꾹
다져넣습니다. 8시간정도 지나
물기가 우로 올라오면 그우에
우거지를 놓고 누름돌로 지지
른 다음 꽉 봉하여 익히면 됩니다.

참, 잊을번 했습니다. 깍두기
는 이발이 약한 어린이들과
인들을 위하여 삶은 무우로도
만들수 있습니다.

방법은 네모나게 썬 무우를
끓는 물에서 살짝 익혀낸 다음
찬물에 행구어내고 생무우로 만
드는 깍두기와는 달리 파, 마
늘, 생강, 고추가루 등으로 만
들어놓은 양념에 버무린 후 간
을 맞춥니다. 이것을 단지에 담
고 소금에 절인 배추우거지를
꼭꼭 눌러 덮어놓습니다. 1~3일
지나 여기에 끓여 식힌 소금물
에 새우젓국을 섞어서 봇고 단
지의 아구리를 잘 봉하여 깍두
기를 익힙니다. 끓여 식힌 소금
물의 농도는 깍두기의 총 염도
가 0.8%정도 되도록 맞춥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깍두
기의 매력은 바로 네모난 형
태와 붉은 색깔의 눈맛과 달고
시원하고 쟁한 그 입맛에 있습
니다.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만들어먹은 전통적인 민
족음식인 깍두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조
선김치는 그 약리학적 및 영양
학적가치로 하여 세계5대건강
음식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석 저장군 김덕령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
년)시기의 의병장이었던 김덕
령(1567년-1595년)은 전라남
도 광주 석저촌 사람이다.

그는 몸집이 작았으나 매우
용감하고 날렵하였다고 한다.
그는 두어길이나 되게 높은 담
도 단숨에 뛰여넘었으며 말을

타고 달리던 속도로 좁은 대
문안으로 나는듯이 들어갔다
가 순식간에 돌아나오기도 하
였다. 김덕령은 성품이 정직하
고 겸손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재
능을 미쳐 알아보지 못하였다.

1592년 왜적이 침입하였을
때 고경명의병대의 참모로 싸

우던 형이 금산전투에서 전사
하자 그는 친구인 장사 최담
령 등 수십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월기하였다. 그는 집파
땅을 팔아 무기를 마련하는 한
편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의병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
를 찾아왔는데 짧은 기간에 그
수는 5 000여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의병부대를 조직한 그
는 의병들에게 싸움하고 전을
치는 법을 배워주었다. 그의
의병부대는 1594년 10월 고성
에 상륙한 왜적들을 격멸한것
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서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
었다.

그 당시 왜적은 김덕령의 이
름만 들어도 《석저장군(바위
밀에서 나온 장군)》이라고 하
면서 무서워 별별 떨었다. 김
덕령은 원래 석저촌사람인데
적들은 그가 바위밀에서 나온
사람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봉건국가는 그가 임진조국전
쟁에서 세운 공로를 높이 평가
하여 증직으로 병조판서, 좌찬
성을 주었고 인민들은 광주에
의렬사를 세워 그의 공적을 후
세에 길이 전하였다.

* * *

상식 오랜 옛날부터 소문난 조선종이

조선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자체
의 특이한 방법으로 닥나무, 마 등
의 식물섬유로 종이를 만들어 널리
리용하였다.

11월이면 겨울철 반식량으로
서 김치를 만들어먹는 풍습은
오직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
는 류다른 풍경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깍두기 한그릇
을 앞에 놓고 마주앉은 사람들

이 서로서로 얼굴에 웃음을 지
으며 《김치깍두기 맛 참 좋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 또 하나
맞볼 때의 그 상쾌하고 쟁한
맛은 어디에 비길데가 없습
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미로운 세계
를 직접 체험해보시기를 권고합
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발전, 금속활자의 발명 등 인쇄술
과 유명한 《팔만대장경》을 비롯
한 서적출판사업의 비약적인 발전
은 종이에 대한 수요를 비상히 증
대시켰다. 고려에서는 1145년 주
현의 등급에 따라 지전의 규모를
설정해주고 닥나무재배를 국가적
으로 장려하였으며 판영제지공장
(당시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인 지
소를 설치하고 중앙과 전국각지에서
고려종이를 많이 생산하여 이웃나라
들에 수출까지 하였다.

송나라에서는 임금에게 바치는 종
이로 고려종이를 썼다고 한다. 원나
라에서도 1309년과 1339년에 불경
편찬에 쓸 불경지를 고려에서 대량
적으로 수입하여갔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이르러 종이
생산기술은 더욱 발전하였는데 종이
원료로는 닥나무뿐 아니라 참대, 솔
잎, 이끼까지도 리용되었다.

* * *

무술터 홍산

단군릉뒤에 나직한 산발이 있는데 그 산발의 마지막구릉을 홍산이라고 부른다. 홍산이라고 불리우게 된것은 예로부터 거기에 나무와 풀이 잘 자라지 않아 늘 벌거숭이로 있었기 때문이였다.

박달족장의 맏아들로 태여난 단군(고조선을 일떠세운 시조)이 열살되던 해 이른봄 어느날 이였다.

이날도 단군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집뜰안에서 활쏘기련습으로 하루해를 보내고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단군의 활쏘기련습을 한동안 보고있더니 아무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를 불러들이였다.

아버지는 단군에게 사나이 열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는 앞으로 우리 종족을 이끌어갈 사람이니 올해부터는 넓은 들과 높은 산발을 타며 몸을 단련하고 무술을 닦아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그 다음날 짐바리를 실은 말을 한 군사에게 끌도록 하고는 단군과 함께 집을 나서 산으로 갔다.

산으로 오른 아버지는 이곳에 네가 무술을 닦을 터라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가고 물었다.

단군은 마음에는 드는데 집이 너무 멀어 오고가는데 하루해가 걸린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오늘부터 이 산속에서 자고 먹으면서 이해할까지 무술을 닦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어렵다고 집

에 와서는 안될뿐아니라 가을철에 가서 네가 닦은 무술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집에 돌아온 생각일랑 아예 말라고 그루를 박았다.

이리하여 단군은 집을 떠나 산속에서 무술을 닦게 되였다.

단군은 바람과 비발이 새는 움막에서 온갖 고통을 참아가면서 말라고 달리며 칼쓰기와 활쏘기를 익히였다. 그러다보니 산에 우거졌던 나무들이 그가 휘두르는 칼날에 성한것이 없었고 날리는 화살에 상처입지 않은것이 없었다.

그의 시중을 들던 군사도 늘어나는 단군의 솜씨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자 단군은 이쯤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군사와 함께 짐을 싸 가지고 무술터를 떠나 부모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집에 들어서는 틈틈한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짓던 아버지는 어찌 무술을 집뜰안에서 보겠는가고 하면서 무술터에 가 기다리라고 하였다.

단군이 무술터에 다시 돌아와 며칠 지난 뒤 드디어 아버지가 왔다.

말을 타고 아버지와 나란히 무술터에 오르는 단군의 가슴은 높뛰였다.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말달리기면 말달리기, 활쏘기면 활쏘기, 칼쓰기면 칼쓰기 등 마음껏 재간을 보여드려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무술터에 오른 단군

의 아버지는 말에서 내려 아무 말없이 무술터만 돌아보았다. 이윽고 아버지는 좋지 않은 기색으로 주위의 나무들과 땅우에 돋아있는 풀들을 보고 무술훈련을 계획했다고 아들을 엄하게 질책하였다.

단군은 다음날부터 다시 맹렬한 훈련을 하였다.

눈이 평평 내리는 겨울에도 그는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

조금도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는 단군의 말발굽밑에서는 무술터의 언땅마저 파헤쳐져 흘날렸다. 또 다시 봄이 와 다른 산들은 푸른 빛으로 단장하였지만 단군의 무술터에서만은 풀 한대 자라지 않았다.

봄내, 여름내 달리는 단군의 말발굽밑에서는 붉은 흙먼지만 풀썩풀썩 피여올랐다. 이제는 남아있던 나무그루터기마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또 한해가 기울어가던 어느날 아버지가 단군을 찾아왔다.

아버지는 단군의 무술솜씨를 보고 기쁨을 감추며 너의 무술에 우리 종족의 래일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라고 다시금 그루를 박았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단군은 다음해에도 무술터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홍산은 오늘까지도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지만 단군의 그 이름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고 있다.

* * *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끄시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을 바라는 겨례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남고위급회담과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북남통일농구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회담들과 행사들이 진행되는 나날들을 통하여 겨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노력하면 능히 이땅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6. 15통일시대에 이어 다시금 가슴뭉클하게 절감하고 있다.

민족이 분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투철한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오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수많은 통일방안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조국통일운동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설 때에도 언제나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시였고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풀어나가신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민족자주와 단합의 사상을 받드시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겨례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민족모두가 받아들여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여 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례를 이끌어주시였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실현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발표되어 자주통일의 역사적리정표가 마련되게 되였다.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공동의 가치로 계속

높이 추켜들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민족을 우선시하시고 민족의 리익을 중시하시는 그이의 결단에 의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의 대규모사절단이 남측지역에 나감으로써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기운이 감돌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장을 열어나갈 용대한 뜻을 안으시고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혁신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시여 온 민족과 전세계에 감격과 환희의 격파가 일어번지게 하였다.

혁신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 27선언으로 11년동안이나 멈춰있던 통일시계의 초침소리는 다시 울리게 되였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이 있은지 29일 만인 지난 5월 26일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이룩하심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9월 그이께서는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온 겨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4. 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심으로써 민족의 통일열망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였다.

참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화해와 평화에로 급전환하고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천출위인이 계시고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우리 겨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독도강탈에 환장한 일본

일본이 조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인 독도를 강탈해보려고 환장이 되여 놀아대고 있다. 얼마전에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작성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뻔뻔스럽게도 지난 세기 1905년 2월 22일에 발표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독도령유권》 주장의 《파학적근거》로 내들었다.

참으로 주객전도와 후안무치의 극치, 날강도적이며 과렬치한 일본만이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상기시킨다면 당시 일본은 《시마네현고시》를 날조하고 그것이 두려워 슬그머니 상품 광고처럼 지방판보, 지방신문에 자그마하게 내였었다. 이것은 사실상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기도 하였다.

그 시기 조선봉건왕조는 일본보다 5년 앞서 근대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였으며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영토수속을 하고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内外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국제법상으로 볼 때에도 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랙취한 지역은 모두 일본령토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모든것을 무시하고 각종 국가문서들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 문구들을 집요

하게 쪼아박고있으며 독도를 마치도 조선에 빼앗긴것처럼 외곡선전하는 광대놀음을 벌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2005년에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하고 매해 《기념행사》를 벌려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이 행사에 정부고위관리들도 참가시키면서 《독도령유권》을 주제로 하는 날조된 선전화를 대량 제작, 배포하고 있다.

교육기관들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외곡된 역사주제를 시키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한 일본은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들도 그렇게 개작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저들의 《독도령유권》을内外에 인식시키기 위한 날조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였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도쿄의 한 복판에서 《령토주권전시관》 개관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독도가 조선에 불법점거되었다는 망발을 퀘쳐대였고 2월에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장에서 조선사람들이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같은 발악을 다하였다.

일본의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비롯하여 자국민들에게 독도를 《빼앗긴 땅》으로 인식시켜 복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자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속심은 이를 명분으로 하여 국민들로부터 헌법개악에 필요한 지지를

손쉽게 얻어내며 일본을 전쟁 국가로 만들어 재침에 나서려는데도 있다.

지금 이를 위한 일본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특히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날을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시기 일본은 군사비를 6년째 연속 사상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고도 성차지 않아 여기에 보충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에 쏟아붓고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 《자위대》는 이전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방대한 육, 해, 공군무력은 《전수방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싸이버, 우주공간에까지 활동령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의 주동적이면서도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화해와 완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령토강탈에 환장이 되여 역사외곡, 헌법개악, 군사대국화 등 재침의 칼을 벼리고 있는 일본의 책동은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독도강탈의 개咎을 꾸며 재침의 길에 나서는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을 그만두고 죄악에 찬 파거역사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에 나서는것이 옳은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은순



조선의 관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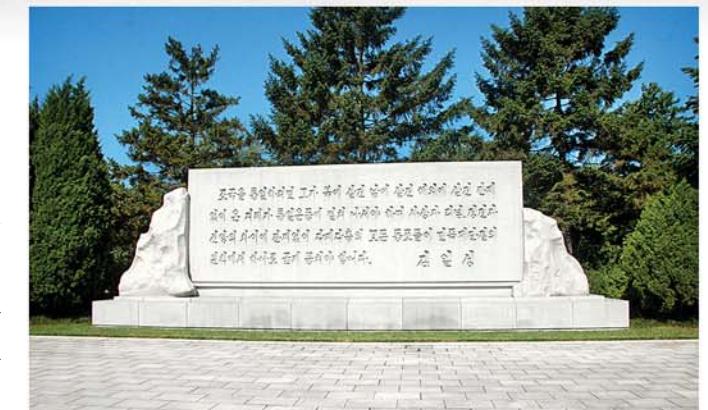
수도 평양의 통일거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침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염원과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기념탑은 주체90(2001)년 8월에 세워졌습니다.

10여만m²의 부지에 일떠선 기념탑은 아치문모양의 탑신과 부주제군상들이 부각된 기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탑신은 천연화강석으로 두 너인이 3대헌장마크를 높이 들어올린 모습을 형상하였고 그아래에 대통로가 있습니다. 탑신의 높이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상징하여 30m, 너비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상징하여 61.5m입니다.

무게있게 형성한 탑신의 끝쪽 기단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내용에 따라 조국통일3대원칙편,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명제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편 그리고 통일만세편으로 된 부주제군상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탑의 내부에는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진보적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동포조직들이 보내온 희귀한 기념돌들을 4개의 호실로 나누어 전시한 기념돌전시방이 있습니다.



남천계곡의 가을 본사기자 최원철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황해북도 신령군의 남천계곡에 가을이 왔다.

초목도 울긋불긋 아름답게 단장하였는데 깨아지른듯 한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계곡풍치의 이채로움을 더해주려는듯 흰 비단필 마냥 흘러내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7-1882155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